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천국에서 큰 자

성경: 마태복음 11장 7-14절

Tag: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11:7-14)

from 요한의 시대 until now. (예수님의 때)

천국이 침노를 당함.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를 침탈하였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전도하려는 예수님-요한의 의심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 맞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

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 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자다.

-그러나 요한은 실족하였다.

-이때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세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7절부터 요한에 대한 정확하신 예수님의 진단.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누구냐?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네, 맞습니다. (요한의 정체성은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다. 이것이 요한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다. 그로 인해서 세력을 얻은 것 같지만, 그는 사사, 즉 사무엘이 아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이다.)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하셨다.

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40:3)

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4:5)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감에서도 확인 됨.
예수님은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요한이라고 확인해 주심.

-그가 너의 길(여호와와 대로를 걷는 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예수님은 인칭대명사를 바꾸어서 자기 정체감을 확인해 주시는 표현. 저 예언에 해당 된 자가 바로 나다.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길을 예비 하였나?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곧바로 금식하러 광야에 가셨다.
-세례요한은 황당했을 것이다. 그는 곧 군사행동을 일으키려 했을 것이다. 자신이 군 사령관이나 모사가 되어 작전을 지휘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경향성을 간파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척을 둔 셈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평가를 내리셨다.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1절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의 생각이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져 있는 말씀이다.

-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이며, 보냄을 받은 엘리야급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요한이 감당했다는 의미이다.

-워딩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자. (당시에 알렉산더대왕이 천하를 제패한지 300년이 흐른 뒤였으니까, 워딩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말라기가 씌여진 이후 400여년이 흐른 뒤에 실현된 예언이다.

-더구나 그는 구약 예언 사역의 핵심 사건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요한이 맡았으므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인물이다. 간결한 표현이지만, 가장 훌륭하고 요한의 자긍심을 가장 높여주는 표현이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과장되지도 않고, 바로 뒤에 이어 언급되는 표현과 문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표현이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아주 부정적이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의아해 할만한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는 크다고 하셨다.

-결국 요한이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는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요한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왜 제자들 앞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과거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전체적인 제자들의 마인드가 요한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시는 요한스러운 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폭력성이다. (세속권력적이었다.)

-요한의 성격은 단호하였고, 강직하였으며, 열정적이었다.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자로서는 그 성격이 딱 어울린다. 그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도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 반정부적이었고,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는 혁명적이었다. 그 무리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다. 그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기까지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요한은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확인 했던 것이다.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 것이 마땅하거나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

냐?)

-요한의 폭력성향을 유한 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신 예수님.

-적극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 서술형을 사용하셨다. (논리적 명제가 아니다.)

-‘천국은 폭력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or ‘싸우듯이 침범해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etc.

-그냥 예부터 천국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해오고 있었다는 서술형이다. (최초의 침노 행위는 타락한 천사를 통한 하늘에서의 전쟁) 그래야 마땅하다든지,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뜻이지, **그래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요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 구절은 현실적으로 해석하기 버겁기 때문에 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 결국 천국은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라 결론 내린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마태도 찬성하지 않았다. 마태는 11장을 아주 부드럽게 끝맺는다.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은 11장 28절 말씀을 믿어야 한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천국 초대문은 전혀 요한스럽지 않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물론 멍에도 있고, 짐도 있지만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너의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가벼운 짐을 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배우고, 이 멩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은 쉽고 가볍기까지 하다.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적이어야 하거나, 무기를 잔뜩 거머쥐면서 무거워야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와서 쉬라고 하신다. 살 짐을 장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자를 등에 진 청년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리고 지기 쉬운 짐, 감당하기 쉬운 멩에를 메어라.

-예수님이 마련한 천국의 모습이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식의 폭력이 무성한 시기를 한정적으로 말씀하셨다.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있다.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때의 천국은 지리적 예루살렘으로 보기 힘들다. 이미 로마는 오래 전부터 (로마 이전의 제국들에게도 침략당함) 예수님 승천 이후 주후 70년까지이므로 로마의 폭력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때로부터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시기를 뜻한다. 그래서 이 워딩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말이 아닌, 요한 개인에게 국한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요한의 천국은 예루살렘을 메시야가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로 건국한다는 환상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요한에 의해서 천국은 오해받고 있었다. 그는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하려고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국은 폭력에 의해서 빼앗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식의 이해는 요한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요한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한다. 시즌 체인지가 되었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오는데, 천국은 복음으로 시작된다. 보아라 걷지 못한 자가 걷는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다. 귀신이 쫓겨간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다.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가 되었든,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요한은 실족했으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물론 그렇다고,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된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천국 복음 자체와 그 천국을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것 같다. 그러나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구령사업에 대한 숙제가 남겨져 있다.

물론 그 수고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그런 핍박을 견딜 수 있을만한 힘이 주어진다.

누구든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수고 하게 되거나, 희생하게 되거나, 현금하게 되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천국은 결코 평등한 세계가 아니다. 요한이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인데, 여전히 아직도 가장 작은 자로 있을지, 아니면 그곳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가 되었는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는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이점을 명심하고,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을 틈틈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